



불교총지중
총지중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통해 참 대승의 정신을 구현하는 생활불교 종단입니다.

총지중보

총기 44년
2015년 1월 2일
음력 11월 12일

월간발행
www.chongji.or.kr



창간년도 총기24(1995)년 10월 16일 등록번호 마 2360호 발행인 :법등(구창희)

The chongji news

구독문의 02-552-1080 불기 2559년 제182호



을미년 효강 종령 법어



을미년 양띠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여 불자 여러분의 가정 가정에 법신 비로자나부처님의 자비광명으로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원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길 서원합니다.
그리고 가정의 안녕과 행복

뿐만아니라 나라와 더 나아가 전 세계가 경제위기, 종교갈등 등으로 더욱 어려워진 이 시대에 비로자나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슬기롭게 헤쳐 나가기를 희망하며, 온 지구촌이 빈곤과 가난, 질병과 고통에서 벗어나 모두가 해탈하는 한 해가 되기를 지심으로 서원합니다.
올해는 을미년 양의 해입니다. 양은 성격이 착하고 유순하며 무리를 지어 살면서 서로 화합하고 평화롭게 사는 동물입니다. 또한 무리를 지어 살기에 융화력과 사회성이 뛰어나며 공동체 내에서 잘 융합합니다.
현재 한국사회는 국론은 분열 되어 여당과 야당, 우파와 좌파,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서로가 서로를 힐난(詰難)하고 있는 지금 국가라는 큰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양의 화합과 융화력을 본받아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도와주며 바른 지혜로서 이 사회를 잘해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비로자나부처님의 가지 원력으로 불자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시고 변함없이 건강하시어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비로자나부처님께 지심으로 서원합니다. 성도합시다.
옴마니반메훔. 옴마니반메훔.
옴마니반메훔.
총기44년 을미년 새해 아침 불교총지중 종령 효강 합장

참회와 화합으로 종조님의 뜻을 이어 제2의 창종을 이루자

제43주년 창교절 기념법회 12월 24일 전국 서원당에서 봉행



▲ 불교총지중 현판을 처음 거시는 원정 대성사

불교총지중 제43주년 창교절 기념 불사가 지난 12월 24일 총본사 총지사를 비롯한 전국서원에서 일제히 봉행되었다. 이날은 종조 원정 대성사에서 주옥같은 진언과 정확한 인계, 엄격한 의례와 사중수법을 비롯한 정연한 교상(敎相)과 사상(事相)을 갖춘 정통밀교 총지종을 입교개종(立敎開宗)한 날이다.

총본사 서울 총지사에서 효강 종령 예하를 모시고 통리원장 법등정사의 집공으로 제43주년 창교절 기념 불사를 열었다.

효강 종령 예하는 전국의 사원으로 전달된 유시문을 통해 “무엇보다도 오늘의 우리가 있기까지 지혜의 길을 열어 주신 종조 원정대성사님과 선대 여러 스승님들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며 “종단의 기틀을 세우신 선대 스승들의 각고의 노력에 감사를 드렸다.”라고 성취와 새로운 종풍 확립을 서원하였다.

통리원장 법등정사는 창교절 설법에서 “남의 허물도 자신의 허물로 보고 참회 정진하면, 서로가 좋은 인연으로 발전한다.” 동참하신 교도분들의 업장소멸과 복덕증장을 서원했다.

이날 법회 후에는 총지사 신정회 주최로 ‘웃놀이’가 교도 및 교무 팀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또한 전국의 사원에서 창교절을 맞아 종단 발전의 새로운 서원을 다지고, 서로를 축하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지 면 안 내

- 1면 효강종령 예하 신년법어
- 2면 통신원 편지
-만보사 유복근 통신원
- 3면 포항 수인사 수인회
본산참배
- 5면 교구장 신년사
- 6면 을미년 주요종단 종정 법어
- 7면 주요종단 총무원장 신년사
- 9면 조계종 전 종정 진제 대종사
원적

새로운 종풍운동

첫째, 뼈를 깎는 듯한 철두철미한 수행으로 융맹정진하며 전신적(全身的)인 삼밀 관행을 실천해 나갑시다.

둘째, 정제(淨財)는 부처님 재산입니다. 소중하게 생각하며 관리를 철저히 합시다.

셋째, 즐거운 마음으로 수순(隨順)합시다.

넷째, 생활불교를 실천하고 널리 홍보(弘布)합시다.

다섯째, 중생제도에 열과 성을 다하며 신명(身命)을 바치도록 합시다.

을미년 통리원장 신년사



「기도」 불교의 창조성과 무한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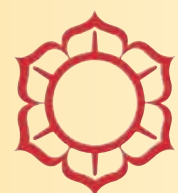
다사다망했던 갑오년이 지나가고, 희망 가득한 을미년 새해의 태양이 힘차게 밝았습니다.
우리는 새해 아침에 우리에게 주어진 '365'일이라는 한 묶음의 선물과 복을 받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선물과 복을 보람 있게 쓰고 살면 더 큰 복이 됩니다.
『세상에는 여섯 가지의 힘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우는 것을 힘을 삼아, 할 말이 있으면 먼저 운다. 여자는 성냄(잔소리)으로 힘을 삼아, 먼저 성을 내고 자기 뜻을 말하며, 사문과 바라문은 참는 것을 힘으로 하여, 언제나 겸허한 마음으로 자기를 낮추어 말한다. 국왕(권력자)은 교만을 힘으로 하여 권력을 휘두르며, 자기 뜻을 말하고, 아라한은 항상 노력(정진)하는 것을 힘으로 삼아 노력(정진)하여 자기 뜻을 이룬다. 수행자는 항상 자비의 힘을 쌓도록 노력해야 한다.』 <증일아함경>
연습이 성공을 만들 듯이 꾸준한 기도는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게 하며,

삶에 큰 힘을 만들어 줍니다.
우리의 삶은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이 힘은 그냥 어디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부처님의 가피가 있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삶의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도는 삶을 긍정적이며 희망적으로 만들어 주며 성취도와 행복감을 높여주고, 더 좋은 인생, 더 좋은 운명을 만들게 됩니다.
불자 여러분!
변함없는 믿음과 신행 생활 속에서 타인을 위하여 복을 짓고, 언제나 기도 정진 합시다.
기도로 좋은 뜻을 이루시고, 건강하고 마음 평안한 행복한 을미년 새해 되시기를 서원합니다.
총기44년 을미년 새해 아침 불교총지중 통리원장 법등 합장

謹賀新年

총기 44년 · 불기 2559년



불교총지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실천하는 불교총지중.

진언밀교 충지도랑에서

즉신성불의 대도를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불교총지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도곡로 25길 35(역삼동) | Tel. 02)552-1080~1083 | Fax. 02)552-1082 | www.chongji.or.kr

종령 효강 대종사

통리원장 법 등

중앙총의회 의장	수 현	중앙교육원장	화 령
사감원장	법상인	동해중학교 이사장	지 성
총무부장	인 선	서울경인교구 교구장	법 우
재무부장	우 인	부산경남교구 교구장	시 정
교정부장	원 당	대구경북교구 교구장	안 성
사회부장	지 정	충청전라교구 교구장	환수원

중앙총의회 의원	법장원	총지중보 및 홍보통신원
총지중 유지재단	밀교 연구소	만다라요양원 · 바라밀 공부방 · 초록어린이집
전당건설 위원회	(재) 사회복지재단	일원어린이집 포레스트7단지 어린이집
통리원 임직원	각 사원 주교 및 스승	각 교구 신정회 일동



통신원□편지

만보사 합창단 축제



▲ 만보사 합창단 공연 장면

오늘은 12월 21일 자성일 합창단 발표회가 있는 날입니다.

3개월 전부터 정사님과 전수님께서는 음성공양 올릴 합창곡을 선택하여 게시판에 올려놓으셨습니다. 또 단원 모두 각자 부를 찬불가 곡명도 선택하여 올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전수님은 합창단 지도자로서 열정과 혼을 담아 열심히 지도하셨습니다.

음악에 지식이 부족한 단원들을 하나 하나 각자 모두에게 세심한 가르침으로 목이 터지도록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점동더위가 심했던 날도 비가 오는 날에도, 눈이 오고 미끄럽고 추운 날씨면 유난히 냉기가 심하게 도는 서원당에서도, 전수님의 열기로 게으름을 피울 수 없고 합창단 단장님이 매일 전화하여 체크하고 행기시는 모습에 결석할 수도 없이 저희 단원들은 맹연습을 하였습니다. 언제나 미리미리 준비하고 연습하시어 저희들에게 가르쳐주신 지도자 전수님과 단장님의 열기와 뜨거운 마음이 전달되어 추위도

모르고 서로가 보듬어 주며 따뜻한 손을 잡아주며 함께 하였기에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기술을 배우고 화음을 맞출 수 있는 큰 나무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멋진 발표회를 가질 수 있구요. 또 단원들 모두 자기가 선택한 찬불가를 맘껏 뽐내며 대중 앞에서 부를 수 있는 대회도 할 수 있는 자신이 생겼습니다. 대회가 끝나고 승원정사님과 전수님 축하곡으로 '좋은 인연'이라는 곡을 연습하여 저희들에게 불러주셨고 아주 큰 감동을 주시며 화답해 주셨습니다. 찬불가를 부른 단원들에게 푸짐한 추첨권 상품을 관객모두에게 선물을 주시어 오늘은 모두 따뜻하고 행복한 우리들의 잔치날이었습니

다. 목이 터져라 열심히 지도해주시는 전수님께 저희 단원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만보사 = 유복근 통신원

〈사고〉

총지종보

발전기금을 성원해주신 **마산 운천사**
교도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총지종보 편집위원회 일동

긍정의 상징. 을미년(乙未年) 양의 해

국립민속박물관 2월 23일까지 특별 전시회 개최



양의 온순하고 긍정적인 의미로 일상 속에 들어와 우리문화 속 양은 길상(吉祥)의 소재로 등장했다.

다만 새해 들어 첫 양날(염소날)인 상미일은 경거망동을 삼가라는 전통이 있다. 천진기 국립민속박물관장은 “염소가 경거망동하고 경술하다는 인식이 영향을 끼친 결과”라고 말했다. 상미일의 풍습을 제외하고는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한 민담은 전해지지 않는다.

역사 속에서 양 꿈은 길몽으로 받아들여졌다. 이성계의 꿈 설화가 대표적이다. 초야에 묻혀 지내던 이성계가 양을 잡으려는데 양의 뿔과 꼬리가 몽땅 떨어지는 꿈을 꾸었다. 꿈 이야기를 들은 무학대사는 양이라는 한자에서 양의 뿔과 꼬리가 떨어지면 ‘왕’지만 남게 되니 임금에 되리라 해몽했다.

긍정적인 이미지가 강한 양의 해이지만 역사를 돌아보면 꼭 밝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1895년 을미년이 대표적이다. 을미사변의 여파는 김홍집 내각이 실시한 을미개혁으로 이어졌고 단발령 등 각종 개혁정책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다. 1955년에는 봄비가 그칠 날이 없어 보리농사가 망했다는 기록이 전해지는데, 이 때의 흉년이 워낙 심해 약간의 막을 것만 생기면 “을미년 보리흉년에 이것이 약간인가”라는 유행어가 생겨나기도 했다.

역사를 더 거슬러 올라가면 1415년에는 왜구가, 1235년에는 몽골이 한반도를 침입했다. 1115년에는 요의 사신이 금나라에 출병을 독촉했고 995년에는 서희가 여진을 축출했다. 935년 을미년에는 후백제 견훤이 고려에 투항했고 신라 경순왕은 고려에 항복해 신라가 멸망했다.

양은 희생의 상징으로도 전해진다. 서양에서는 사람을 징벌하는 신에 대한 희생물로 양을 바쳤으며 우리 조상도 제사에 양을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 때문에 양은 재물, 종교인, 선량한 사람 등을 의미할 때도 쓰인다. 양이 가진 희생의 이미지는 그 다양한

쓰임새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흔히 양을 가리켜 가죽, 털, 고기, 뼈까지 버릴 것이 없는 동물이라 하는데 양 기름은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해 허약체질인 사람에게 좋고 양고기는 양이 적고 흔하지 않아 예로부터 귀한 손님에게 대접하는 음식으로 사랑 받았다. 가볍고 보온성이 높은 양모는 옷감 중에서도 최고급으로 각광받는다.

양은 정직과 정의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이는 반드시 갔던 길로 되돌아오는 양의 고지식한 습성 때문이다. 이 같은 양의 이미지 때문에 한국 속담에는 “양떼는 부자가 못 된다”라는 말이 전해져 내려온다. 양처럼 정직하고 맑으면 부정을 저지르지 못해 돈을 벌기 어렵다는 의미다.

대신 양의 해는 학자의 출생빈도가 가장 높은 해로 알려져 있다. 양띠 사주를 가진 사람은 교수, 교사, 언론인, 문예계 등에 잘 맞는 띠로 동서양을 통틀어 학자는 양띠가 제일 많다고 천진기관장은 전한다. 말했다.

자료제공=국립민속박물관, 문화재청



부처님 자비 광명, 어려운 이웃과 나눴어요

개 천 사	강 순 시	12/17	10,000
	한 영 란	12/17	1,000,000
	장 진 식	12/19	20,000
	무 명 씨	12/23	20,000
관 성 사	황 성 녀	11/26	10,000
	무 명 씨	11/28	100,000
	김 홍 조	12/16	10,000
	인 선	12/20	20,000
기 로	수 정	12/23	30,000
	해 정	11/27	10,000
	대 관	12/20	10,000
	밀 공 정	12/20	10,000
	법 수 원	12/20	10,000
	법 장 화	12/20	10,000
	법 지 원	12/20	10,000
	불 멸 심	12/20	10,000
	사 홍 화	12/20	10,000
	상 지 화	12/20	10,000
	수 증 원	12/20	10,000
	총 지 화	12/20	10,000

단 음 사	선 도 원	12/20	10,000
	해 정	12/24	10,000
	법 연 지	12/17	10,000
	정 덕 순	11/26	10,000
만 보 사	정 덕 순	12/24	10,000
	정 정 희	11/28	5,000
밀 인 사	진 평	12/4	5,000
백 월 사	양 정 현	12/3	10,000
	양 지 현	12/3	10,000
삼 밀 사	하 명 순	12/15	10,000
선 립 사	수 정	12/11	30,000
	황 귀 석	12/15	20,000
	정 향 식	12/17	20,000
	심 지 장	12/17	10,000
수 인 사	김 봉 기	11/26	10,000
	정 순 득	12/15	10,000
	김 봉 기	12/24	10,000
승 천 사	원 봉	12/11	10,000
	지 선 행	12/11	10,000
실 보 사	이 순 옥	12/2	10,000

실 지 사	무 명 씨	12/11	1,000,000	
	정 경 자	11/27	10,000	
	운 천 사	무 명 씨	12/10	10,000
	일원어린이집			
정 각 사	하 재 희	11/26	30,000	
	서 선 숙	11/26	10,000	
	이 지 민	11/26	10,000	
	강 경 화	11/26	10,000	
	김 지 영	11/26	10,000	
	김 용 미	11/26	10,000	
	박 문 실	11/26	10,000	
	구 미 자	12/1	10,000	
	천 소 영	12/12	10,000	
	장 재 은	12/24	10,000	
	김 문 수	12/17	10,000	
	탁 상 달	12/18	20,000	
정 심 사	원 정 언	12/24	20,000	
지 인 사	승 효 제	12/11	10,000	
	지 성	12/11	10,000	
	허 성 동	12/23	30,000	

초록어린이집	이 은 주	11/26	10,000
	이 지 은	11/27	20,000
	오 현 주	12/1	10,000
	현 진 영	12/23	10,000
총 지 사	이 지 은	12/24	10,000
	범 등	12/1	30,000
	손 경 옥	12/20	9,151
	박 종 석	11/27	20,000
해 정 사	지 성 인	11/27	20,000
	장 영 순	12/16	10,000
	지 정	12/11	20,000
	무 명 씨	11/28	20,000
흥 국 사	장 재 은	12/1	10,000
	무 명 씨	12/9	10,000
	김 국 동	12/18	20,000
	김 갑 선	12/19	10,000

11월26일부터 12월25일까지 후원회 가입안내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 복지사업에 소중히 쓰여집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원명을, 통신란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종 사회복지 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포항 수인사 신행단체 ‘수인회’ 총본산 총지사 참배

김장 나눔 등 다양한 활동으로
포항시 자원봉사 마일리지 기관 지정



▲ 총본산을 참배한 포항 수인사 신행단체 ‘수인회’

포항 수인사(주교 안성 정사)의 자발적 신행단체인 ‘수인회’가 12월 10일 총본산 총지사를 참배했다. 참배단은 밀교연구소 소장 법경 정사의 집공으로 대종불사를 봉행하고, 종조전과 원정기념관 전시실을 참배했다.

통리원장 법등 정사는 환영인사를 통해 “수인사 전통사찰요리 강좌를 통해 자발적으로 형성된 신행단체인 수인회

회원여러분의 본산 참배를 환영합니다. 총지종의 교화의 방편으로 사찰요리강좌를 맡아주신 금화보살님의 원력과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종단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가감 없이 말씀해 주시면, 적극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며 지역 교화에 앞장서는 수인회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날 법회 후에 통리원 2층 반야실에서

수인회 회원들과 통리원 집행부들이 간담회를 갖고 교화를 위한 의견을 청취했다.

수인회를 조직하고 사찰 요리 강좌를 진행 중인 금화보살은 “수인회는 기존의 교도들 보다는 사찰요리 강좌를 수강한 수료생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단체입니다. 포항시와 교류 협력을 통해 자원봉사 마일리지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수인회는 지난 12월 초에는 김장 나눔 행사를 통해 지역 독거 노인을 비롯한 불우 이웃 50가구에 김장을 보시했습니다.”라며 “장기적으로는 주말 무료급식소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시설적인 기반, 특히 요리교실의 개인용 개수대 설치와 장기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며 수인회의 현황을 말했다.

또한 수인회 회원들 자발적인 재능 지원으로 장구 등 다양한 강좌를 개설 할 예정이라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했다.

총무부장 인선정사는 “오늘 의견들은 집행부와 잘 상의하여 종단 업무와 예산안 반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며 화답했다.

이날 총본산 총지사를 방문한 수인회 회원들은 견지동 조계사와 성북동 김장사를 참배하고 포항으로 돌아갔다.

총기 43년 창교절 기념 어울림 미술전 개최

도예가 황승욱 선생 및 교도 등 200여 점 출품



▲ 총기 43년 창교절 기념 어울림 미술전 개막식

총지종 어울림 문화센터(센터장 김종인)는 총기43년 창교절 기념 ‘어울림 미술전’을 12월 22일부터 25일까지 통리원 반야실 등에서 개최하였다.

어울림 문화센터 센터장 김종인 박사의 사회로 열린 개막식에는 통리원장 법등 정사를 비롯한 통리원 관계자와 이채원 불교방송 사장 등이 참석하여 개막 테이프

를 끊었다.

이번 전시회는 교도들의 작품과 분청 자기와 월호로 유명한 도예가 황승욱 작가, 수채화로 유명한 이강묘 작가의 작품과 스승들의 서예 작품 등 200여점이 전시되었다.

통리원장 법등 정사는 개막식 인사말을 통해 “올해 출품한 어울림 문화센터의 발전을 기원하는 이번 전시회는 문화와 예술의 많은 인재들이 구름처럼 모이는 부처님의 넉넉한 품이 되기를 서원하며 출품 하여주신 작가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며 전시회에 참석하신 내외 귀빈께 인사를 했다.

이번 전시를 기획하고 주최한 어울림 문화센터는 내년에도 참신한 기획 전시와 다양한 문화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한해를 마감하고, 한마음으로 신행활동 다짐

종립동해중 불교어머니회 및 불자교사회 합동 송년 법회



▲ 종립 동해중학교 불교어머니회, 불자 교사회 합동 송년 법회

종립동해중학교 불교어머니회(회장 조새미, 2-7 윤호웅 모)와 불자교사회(회장 탁상달 교장)가 12월 22일 동해사 서원당

에서 합동 송년법회를 봉행했다. 동해중학교 정교 법신 정사의 집공으로 열린 이날 법회에는 어머니회와 교사회가

한 해 동안의 신행 활동을 마감하고 새로운 각오를 부처님 전 서원하는 시간이었다.

이날 법회에는 정각사 법수연 전수가 설법을 통해 “불교에서는 마침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새로운 인연의 고리로 시작하는 것이므로 일 년의 끝은 새로운 한해의 시작으로 생각하여야 합니다. 우리들은 그 시간의 연속성에서 윤회의 사슬을 끊어 내 버리기 위해 수행하는 것입니다. 참석 하신 모든 분들이 새해에는 더욱 정진하는 불자가 되기를 서원 합니다.”며 새로운 한해를 맞는 각오를 당부했다.

이날 법회 후에는 동지를 맞아 정각사에서 정성으로 만든 팔죽을 서로 나누며 공양 하였다. 동해중학교=김재근 교감

종립 동해중학교 총동창회 2014년 가족 송년의 밤

전국 최고, 동문화합의 신기원을 이루자.



▲ 2014년 종립 동해중학교 총동창회 가족 송년의 밤

종립동해중학교 총동문화는 12월 23일 부산 광안리 씨사이드 뷔페에서 2014년 총동문화 송년의 밤을 열었다.

동문화원 및 가족, 탁상달 교장, 김재근 교감 등 교직원, 재학생들이 함께 한해를 되돌아보는 행사를 열었다.

김진도 총동창회장(3회)은 “올 한해도 학교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선생님들과 동문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동문회는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명예에 손색이 없는 선, 후배님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14년은 건배로 털어버리고, 2015년 새로운 한해를 맞이합시다.”며 건배를 제의했다.

탁상달 교장 선생님은 인사말을 통해 “사회 각계각층에서 저 마다의 역할을 다하고 계시는 졸업생 여러분의 올미년 새해 건승과 가내 평안을 기원합니다.”라며 졸업생들의 건승을 기원했다. 변혁 사무국장은 앞으로도 동문간의 상호화합과 학교발전을 위한 행사를 꾸준히 열 계획 이라고 밝혔다.

제31주기 추선법회 봉행 부산·경남 교구 교화의 어머니 정각원 대전수



▲ 故 정각원 대전수

12월 28일 부산 정각사에서 부산·경남교구의 초석을 마련하고, 교화의 문을 연 ‘정각원’ 대전수의 제31주기 추선법회가 봉행되었다. 이날 법회는 부산·경남 교구 스승님들과 교도들이 동참, 스승님의

극락왕생을 서원했다. 스승님의 교화를 받고 수행을 이어나가는 교도와 스승들은 총지종 교화의 불꽃이 다시 한번 들불처럼 피어나가기를 서원했다. 정각사= 이상록 통신원



불교총지종 교도복지시설 희락원 입소안내



불교총지종이 교도들의 평생복지를 실현하고자, 새로 운영하는 성남 교도복지시설 희락원이 준공 되었습니다. 편안한 환경에서 신행생활과 함께 노후를 보내실 총지종 교도들의 입주를 기다립니다. 서울·경인 교도들 중 65세 이상으로 ‘오세대제도’를 성만 하신 분과 입교20년 이상인 총지종 교도는 우선적으로 입주가 가능합니다. (단 총지종 시회복지재단의 내부 심사에 통과 하여야 합니다.)

-교도복지시설: 성남 법천사 내, 3층 총 15실
-입소인원: 1인 1실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부부는 1실 2인 입주가능)
-편의시설: 공동세탁실, 공동목욕탕, 공동취사시설 및 1일 3식 제공
*매월 소정의 공양 준비금은 따로 납부합니다.

문의 각 사원 주교 및 총지종 통리원 전화) 02)-552-1080



▲ 개별화장실



▲ 공동목실



▲ 공동주방



▲ 생활공간

불교의 선정 36

미얀마의 사념처 수행

상좌부 불교 수행의 중심 미얀마 세계적인 위빠싸나 수행처로 유명

화령 정사 / 철학박사 중앙교육원장



미얀마는 기원전 3세기에 불교를 받아들인 이래 역대 왕조에 의하여 지속적인 지지를 받아왔다. 특히 5세기 중엽에 스리랑카로부터 상좌부 불교를 받아들였으며 파간왕조 때는 정교로서 받들어졌다. 이후 대승불교와 밀교까지도 미얀마에 유입되었지만 상좌부불교가 정통성을 유지하면서 최근에 까지 이르렀다. 영국식민통치에 불교는 많은 억압을 받았으며 영국인들에 의하여 많은 사원이 파괴되기도 하였지만 미얀마인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지금은 상좌부불교의 중심국가가 되었다. 특히 미얀마의 수행법은 많은 불교도들이 그 효과를 인정하면서 이제 미얀마는 명상의 세계적인 중심지가 되어 명성을 날리고 있다.



▲ 미얀마 마하시 선센터에서(중앙교육원장 화령정사)

미얀마의 정통적이고 특색 있는 사념처 수행법이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는 이렇다. 20세기 초 나라다라는 한 미얀마 비구가 깨달음에 바로 이를 수 있는 수행법을 찾아 미얀마 전국을 헤매고 다녔다. 몇 사람의 수행자를 만났지만 만족할 만한 답을 얻지 못하던 차 깊은 산속에서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고 있다는 한 사람의 스승을 만났다. 나라다가 그에게 바로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을 묻자 그 스승은 이렇게 반문했다. “그대는 어째서 붓다께서 말씀하신 것을 찾지 않고 다른 데서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가? 붓다께서 이미 ‘하나의 길’을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그 스승이 말한 것은 바로 사념처 수행이었다. 나라다는 그 스승의 가르침을 잘 기억했다가 돌아와서 그에 관련된 경문을 연구하고 거기에 따른 전통적인 해설을 찾아보며 깊이 사유에 들어 정진 수행하였다. 그러다가 마침내 사념처 수행이 어떻게 해탈에 이르게 하는가를 깨닫게 되었다. 그는 자기의 수행경험을 발전시켜 하나의 수행방법을 개발했는데 이것이 이른바 미얀마의 사념처 수행이 나오게 된 유래이다.

미얀마의 사념처 수행법이라고 하는 것은 미얀마 사람들이 발명했다는 뜻이 아니라 붓다 당시의 전통적인 사념처 수행이 미얀마에서 개발되고 적극적으로 진흥되었다는 의미이다. 현재 미얀마에는 사념처 수행법이 널리 보급되어 있으며 세계 각국의 불교 수행자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얀마 정부는 다행히도 이러한 미얀마의 수행단체에 대하여 많은 지원을 하고 있어 도처에 수행도량이 많이 건립되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도량을 중심으로 사념처법을 닦고 있다. 미얀마의 사념처법은 위빠싸나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위(vi)라는 말과 빠싸나(passana)라는 말이 결합한 것인데 이 말에 대한 해석도 분분하지만 대체로 ‘뛰어난 통찰’의 의미가 있다. 이



▲ 아침 발우공양에 나서는 미얀마 스님들

말도 사마타와 함께 부처님 시대부터 써내려 오던 용어임은 말할 것도 없다.

미얀마에는 마하시 사야도, 순론 사야도, 쉐우민 사야도 등이 제창한 여러 가지 사념처 수행법이 있지만 대동소이하다. 대부분이 《대념처경》과 《청정도론》에 기초를 두고 약간씩 변형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마하시 사야도에 의하여 제시된 사념처법이 국제적으로 가장 저명하며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마하시의 방법도 각 유파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마하시 사야도는 1954년에서 1956년에 걸쳐 미얀마에서 거행된 제6차 경전 결집대회에서 제1차 결집 때의 마하가섭이 했던 것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 삼장법사였다. 마하시의 위빠싸나 수행법은 집중적이고 연속적인 수련을 하게 하면서 엄격한 내관(內觀)의 방법으로 정념을 개발하게 한다. 잘나로 변화하는 우리의 심신을 끊임없이, 그리고 세밀하게 관찰하여 철저하게 무아를 깨닫도록 하며 아울러 지혜를 개발하게 한다. 특히 마하시의 수행방법은 전통적으로 호흡을 관찰하기 위하여 코끝을

주시하는 것과는 달리 호흡에 따라 복부의 일어나고 꺼지는 것을 관찰하는 방법을 쓴다. 이것은 호흡보다는 현저하게 드러나는 복부의 일어나고 꺼지는 현상을 관찰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고 집중이 잘된다고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다른 유파보다도 마하시의 방법이 훨씬 대중적이고 널리 알려진 데에는 아마도

이러한 간편성과 효율성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어떠한 수행방법이든지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여 삼법인을 통찰하고 무상의 지혜를 얻는 것에는 변함이 없으며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이 현대에 와서 조금씩 변형된 것에 불과하다.

미얀마 불교 연혁

기원전 3세기	미얀마에 불교가 들어오다
5세기 중엽	상좌부 불교가 스리랑카를 통하여 들어옴
파간 왕조시기 (1044-1287년)	아노라타왕이 미얀마를 통일하고 상좌부 불교를 정교로 받들
산족(族) 통치시기 (1287-1531년)	불교가 남북방 왕조의 지지를 얻어 더욱 흥성함
통구 왕조시기 (1531-1752년)	미얀마가 다시 통일되고 불교가 더욱 흥성함
알라웅파라 왕조 시기(1752-1885년)	역대 왕들이 불교를 크게 지지했으며 1871년 만달레이에서 제5차 결집대회가 열림
영국식민통치시기 (1886-1947년)	불교가 심한 타격과 압박을 받아 많은 사원이 파괴됨
미얀마 독립 (1948년-지금)	불교가 다시 융성하여 1954년에서 1956년 사이에 제6차 결집대회가 열림. 불교명상의 세계적인 중심지가 되다.

謹賀新年

총기 44년 · 불기 2559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관 성 사

주 교 : 정사 인 선
전수 정 계 월
☎ 02-736-0950

밀 인 사

주 교 : 정사 원 당
전수 묘 심 해
☎ 02-762-1412

법 천 사

주 교 : 정사 법 경
전수 덕 현
☎ 031-751-8685

벽 룡 사

주 교 : 정사 법 일
전수 자 행 정
☎ 02-889-0211

총 지 사

주 교 : 정사 법 등
전수 인 덕 심
정사 서 강
☎ 02-552-1080

실 지 사

주 교 : 정사 법 우
전수 인 지 심
☎ 02-983-1492

정 심 사

주 교 : 정사 화 령
☎ 02-491-6888

지 인 사

주 교 : 정사 지 성
전수 승 효 제
☎ 032-528-2742

시 법 사

기초승: 선 도 원
☎ 032-522-7684



서울 · 경인 교구 일동

을미년, 새해 날마다 좋은 날 되소서



수 현
중앙총의회 의장

충지인 여러분 새해 인사 드립니다.
새해에는 나날이 행복해지는 그런 한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연말에는 지난 한해를 돌아보며 좋았던 일 나뉘던

희망으로 가득한 새해를 맞으며

일들을 생각 하셨을 겁니다.
사람은 좋은 일에는 집착하게 되고 나쁜 일에는 후회하게 됩니다. 좋은 일이란 나쁜 일이란 지난 일입니다.
마치 그것은 좋은 꿈을 꾸었던 나쁜 꿈을 꾸었던 깨면 꿈일 뿐입니다.
지나간 일에 허비하지 마시고 놓아 버리십시오.
잡고 있는 것이 많으면 손이 아픕니다.
들고 있는 것이 많으면 팔이 아픕니다.
이고 있는 것이 많으면 목이 아픕니다.
지고 있는 것이 많으면 어깨가 아픕니다.
보고 있는 것이 많으면 눈이 아픕니다.
생각 하는 것이 많으면 머리가 아픕니다.
모두 다 내려 놓으세요.....
전부 다 내려 놓으세요... 그리고 편안하게 사세

요. 우리가 아픈 것이 많은 것은 모두 다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힘을 댈 땀 내리놓고 쉬세요.
그렇다면 나 자신에게 칭찬의 한마디를 해주세요.
“여기까지 참 잘왔구나, 올 한해도 고생했다 힘들었지 라고...”
다사다난 했던 2014년 무거운 짐들은 모두 벗어 버리시고 새로운 희망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 힘차게 출발 하시길 바랍니다.
하루를 지내고 나면 더 즐거운 하루가 오고 사람을 만나고 나면 더 따스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좋은 일이 생기면 더 행복한 일을 만들 수 있는 아름다운 새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2015년 을미년을 맞이하여 건강과 함께 밝은 한해, 가정에 행복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법 우
서울 경인 교구장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각자 남, 보살님들의 가정에 비로자나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광명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다시 한 해를 맞이하여 우리 불자들도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지금까지의 구태의연한 자세를 버리고 새롭게 태어나야 할 것입니다.
물질 위주의 삭막한 현실 속에서 탐진치에 물든 나 자신을 돌이켜 보고 청정한 삶을 영위하여 사회의 모범이 되도록 불자로서의

서울경인교구 교구장 신년사

각오를 새롭게 합니다.
그러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나 자신을 정화하고 그러한 정화를 바탕으로 사회를 위하고 민족을 위하고 나아가서는 온 인류를 선도하는 대승적인 참된 불자로 거듭나는 한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처님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 가야 하는가와 관련된 지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셨습니다. 바로 팔정도과 중도의 길이 그것입니다. 바르게 보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하고, 생활하고, 정진하고, 생각하고, 바른 선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와함께 전도되거나 왜곡되지 않은 바른 길, 곧 중도의 삶을 말씀하셨습니다.
을미년 새해에는 부처님 가르침대로 열심히 정진하고, 보살도를 실천하는 한 해가 되시고, 법신 비로자나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지심으로 서원 합니다.
성도합니다.

“참회와 남을 위한 기도”



시 정
부산 경남 교구장

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해는 우리 불자들이 감당키 어려운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실의에 찬 나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불자여러분들의 수행정진으로 어려움을 이겨낸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12간지 중 양(未)의 해입니다. 양은 그 성질이 온순하고, 풍요를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올해는 국운이

용성하여, 온 나라가 기쁨의 박수소리가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불자들은 내 자신의 허물을 참회하고, 남을 위한 서원과 불공 정진을 해야 하겠습니다.

중조법설집에는

『상대하물 보지말고 내하물을 먼저고쳐 다시짓지 않겠다고 참회하고 서원하면 나는도로 복이되어 내하물이 없어질때 상대하물 없어진다』 는 말씀을 계승으로 설하셨습니다.

이번 을미년 새해에는 자신의 허물을 참회하고, 남을 위한 서원 정진을 성취하시면 곧 나의 복이 되고, 남의 복이 되니 일거양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올 한해도 수행 정진의 생활화로 생활불교의 참 공덕을 쌓으 시기를 서원합니다.
옴마니반메훎

화평한 삶을 위하여



안 성
대구 · 경북 교구장

2015년, 을미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불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고, 무엇보다도 각 가정에 평온이 가득하고 살림살이가 한결 나아지는 한 해가 되기를 서원합니다. 좋은 한해가 되기 위하여 우리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해갑시다.
행복과 지혜는 여유롭고 부드러운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상대를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아니하고 더욱 부드럽게 대하였으면 합니다.
부드럽고 순한 마음에서 진심과

원망심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수행과 자기 성찰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진심과 원망심을 억지로 없애려고 하면 오히려 없어지지 아니하고 속구치기만 합니다. 반대로 환희심을 내고 부드러운 마음을 일으키면 자연히 원망심과 진심은 사라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체중생 보기를 그 자식과 같이 하여, 중생으로 하여금 번뇌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설교하셨습니다. 보살은 악한 마음으로 못 중생들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화내거나 원한을 품는 일이 없고 오직 경양과 부드러움이 있으며, 일체 중생에 자비한 마음을 일으켜서 중생을 돌보십니다. 우리가 수행하는 목적은 나 혼자만의 성불에 있지 않습니다. 자타 모두가 성불하는데 있습니다. 그 성불이란 하루 가운데 즐겁고 화평한 마음을 지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부끄러움 없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합시다. 올 한 해 동안 모든 일을 소원 성취하시고 수행한 불법의 은덕을 입으시기를 서원합니다. 옴마니반메훎.

초발심을 잊지 말자



환수원
충청 전라 교구장

을미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승단의 스승님들과 교도 가정에 비로자나 부처님의 자비광명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서원합니다.
늘 새해가 되면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것이 우리 중생들입니다만, 새로운 마음가짐도 중요하지만 금년의 새해 아침에는 오히려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는 것이 더욱 소중하고 긴요한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시작은 누구나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을 잘 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유종의 미라 하듯이 끝마무리를 잘해야 새로운 시작을 더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맺음이 더욱 중요합니다. 시작이 아무리 좋아도 마침이 좋지 않으면 그 시작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잘 시작하여도 작심삼일(作心三日)인 것은 우리 중생들의 오랜 습성입니다.
그러므로 새해 우리가 다짐 할 것은 새로운 것을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해에 못 다한 것을 올해에는 완성하고, 지난해에 부족하고 잘못 되었던 부분을 더욱 다듬고 완상해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좋은 마무리를 위한 시작이라 생각하면서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엄법성계에 이르기를 ‘초발심시변정각(初發心時便正覺)’이라 하였습니다. 처음 발심하는 그때가 곧 바른 깨달음이라는 뜻입니다. 되새겨 보면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수행하고 모든 일을 해나간다면 깨달음을 이룰 수 있고, 모든 일을 잘 해 나갈 수 있다고 풀이 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는 마음이 온전하게 이어지고 지속될 때 수행이라 이름 할 수 있습니다. 새해불공 열심히 하시고, 한 해의 마음공부를 새해불공 할 때와 같이 지속한다면 금년 을미년은 더욱 넉넉한 한해가 될 것입니다. 모든 가정에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력이 함께 하시고, 소원성취 하시기를 서원합니다. 성도합니다.

謹賀新年
총기 44년 · 불기 2559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정각사

주 교: 정사록 경
전수 법수연
묘 홍
정사법 선

☎ 051-552-7901

관음사

주 교: 전수 정인화
☎ 051-896-1578

단향사

기초승: 경 원
☎ 055-644-5375

덕화사

주 교: 정사시 정
전수 원만원
☎ 051-332-8903

밀행사

주 교: 전수 금강륜
☎ 055-354-3387

법성사

주 교: 정사혜 광
☎ 051-468-7164

삼밀사

주 교: 정사서 령
전수 혜원정
☎ 051-416-9835

성화사

주 교: 전수 수심정
기초승 지 광
☎ 051-254-5134

실보사

주 교: 정사덕 광
전수 보 현
☎ 052-244-7760

운천사

주 교: 전수 정원심
☎ 055-223-2021

일상사

기초승: 수행 월
☎ 055-352-8132

자석사

주 교: 전수 법상인
☎ 051-752-1892

화음사

주 교: 정사수 현
전수 자심관
☎ 055-755-4697

원융회통의 새아침을 함께 열어갑시다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올해는 자 유을미년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올해는 온순한 청양(靑羊)의 해입니다. 양은 이해심이 뛰어나고 화합을 잘하기 때문에 무리지어 살아가도 다툼이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삶이 청양처럼 늘 조화롭고 행복하길 기원합니다.

새해는 우리 민족이 일제 식민통치로부터 해방된 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70년 동안 전쟁과 분단의 상처를 딛고 민주주의와 경제성장 모두 세계가 놀랄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강렬한 빛만큼이나 어둠의 그늘도 짙게 드리워 있습니다.

경제 대국에 걸맞는 제도와 문화, 그리고 이를 엮어내는 우리의 마음들은 아직 부족하기만 합니다.

남과 북은 대결과 갈등이 갈수록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정전 60주년을 지나오며 평화의 전환점을 기대했으나, 긴장 해소는 아직 큰 걸음을 떼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불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우리가 70년 전 해방의 기쁨을 맞이했을 때 어떤 나라를 꿈꾸었을까요? 민족은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갈리어 서로를 겨누어 감시하고, 사회는 이념 계층, 종교, 지역, 세대가 편을 갈라 다투고 맞서는 나라를 꿈꾸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부처님은 많은 사람들이 자주 모여서 회의를 통해 의견을 나누는 것, 뒷사람 아랫사람이 서로 화목하여 함께 국정을 운영하는 나라를 가장 이상적인 나라라 하셨습니다. 누구의 침략도 받지 않는 강성한 국가라 하셨습니다. 부처님이 대화와 타협을 강조하신 것은 지금 우리 사회에 비추어도 율령이 큰 가르침입니다.

국민 여러분, 불자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난제를 풀기 위해, 먼저 대화하고 타협하는 희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해방 70주년을 맞아 더 이상의 편견과 배제를 떠나 서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고 나아가 길을 함께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랜 적대관계였던 미국과 쿠바가 국교 정상화를 위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혼연히 손을 맞잡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정세가 어느 때보다 심상치 않은 지금 한민족인 남과 북이 공존과 상생을 위해 대화와 타협을 마다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민족의 슬기로 국제정세의 거센 파도를 헤쳐가야 합니다.

우리 종단에서도 새해에는 서로 다른 주장과, 서로 다른 해결 방법을 공론의 장을 열어 놓고,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점을 함께 찾아가는 원융회통(圓融會通)의 아름다운 전통을 새롭게 펼쳐가겠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고 넘어야 할 많은 과제들이지만, 서로의 뜻이 모이면 문수의 지혜가 나온다는 말씀을 의지해서 사부대중 여러분을 믿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불자여러분! 국민여러분! 새해의 맑고 밝은 기운이 아침햇살처럼 온 나라, 온 국민, 사부대중의 앞길을 환하게 비추길 기원합니다. 대화와 타협으로 청양처럼 조화롭고 행복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갑시다. 대화합시다. 함께 갑시다. 고맙습니다.

“자비의 마음이 화하면 보살의 경지에 이릅니다”



도산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을미년(乙未年)새해가 밝았습니다. 금년 한 해도 평화와 행운의 상징인 양의 해를 맞아 국민 모두와 불자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다사다난했던 일들도 많았고 국가경제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는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를 만드는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국민이 모두 슬픔에 잠겼던 세월호 사건은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고 아직 실종자가 남아 있지만 우리는 시련을 딛고 일어섰고 있습니다.

옛 선지식이 말씀하시기를 악한 일을 생각하면 화하여 지옥이 되고 착한 일을 생각하면 화하여 극락이 되며, 자비의 마음이 화하면 보살의 경지에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또 미혹한 사람은 이 도리를 깨치지 못하고 생각마다 악을 일으켜 항상 악도에 떨어지지만, 만약 한 생각을 선으로 돌이키면 지혜가 생기니 이것이 곧 부처님

의 모습이라 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불자 여러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나라살림과 더불어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쉽지 않은 앓을 전망입니다. 사회적 갈등과 계층간 이념의 대립도 여전히 우리의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생각을 돌이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남을 나와 같이 여기는 마음을 가진다면 사회의 그늘진 자리부터 가장 따사로운 온기와 햇살이 퍼져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멀리 보고 깊이 생각하며 열린 마음으로 대화할 때 작은 나를 벗어나려고 함께하려는 경계에 닿을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억겁의 인연을 함께

나누는 동반자이자 반려자일 것입니다. 저마다의 어렵고 힘들다는 마음을 갖지만 자성의 자리에서 그 실체는 허공에 그려진 꽃처럼 언제고 사라질 것이며 진실로 남는 것은 영원한 행복을 함께하는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옛 어록에 “남을 책망하되 그 사람을 내 몸처럼 여기면, 천하에 용서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화합과 평화의 해를 맞아 나와 남이 다함께 이로운 ‘자리이타(自利利他)’의 한 해가 되기를 축원 드리며 국민 그리고 불자 여러분 모두가 복되고 행복한 나날이 되시기를 축원 드립니다.

한배를 탄 동업의 마음으로 뜻을 모을때입니다



회정장사
진각종 통리원장

희망의 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도 모든 불자들이 늘 복되고 건강하시어 서원하는 모든 일들이 원만히 성취되고,

새해의 상서로운 기운으로 국가와 민족이 평화롭고 안녕하길 서원합니다.

유난히 힘들었던 지난 한해를 돌아보면서 아직도 고통 속에 헤매는 이웃들이 하루 빨리 평화로운 삶을 되찾길 바라며,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보살의 마음으로 선근을 쌓는 복된 한해가 되길 간절히 서원합니다. 비가 온 뒤에 땅이 더 단단히 굳어지듯이 올 한해는 희망차고 밝은 새해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불자 여러분, 작금의 현실은 빠른 속도와 변화를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변화와 발전은 한 사람의 뜻이 아닌 우리 모두의 협력과 상생에서 성취되리라 봅니다. 가치적 실적에만 비교함이 없이 위선이 아닌 진실과 진리에 순응하는, 마치 씨 뿌리는 농부의 마음으로 한국 불교를 일구고, 선일견과 독선의 자기중심 생각을 대승적 화합으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서로를 비난하고 헐뜯고, 남의 탓을 하고, 나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들은 비우고 한 배를 탄 동업의 인연으로써 어떻게 이

변화의 물결을 헤쳐 나갈지 함께 고민하고 뜻을 모을 때입니다. 이제 불교의 미래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곧 결실이 될 것입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보살의 마음자리로 미래를 준비하는 희망찬 한해가 되리라 기대해 보며, 불법을 널리 호종하는 일에 전력을 다해, 그 회향공덕으로 을미년 한해 안정적인 원만불사가 이루어지길 서원합니다.

아울러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이 그 원동력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최상은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것



춘광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밝은 빛살 속으로 상서로운 군마(群馬)가 힘차게 달려오며 희망과 행복의 장엄한 서곡을 연주하는 듯합니다.

일체중생이 밝은 가운을 받아 환희 공양을 베푸니, 삼라만상이 그대로 불보살의 구현입니다.

이 찬란한 새 아침, 우리는 올 한해를 살아가는 지혜를 되새겨야 합니다. 올 한해는 일체를 공경하는

해가 되기를 염원합니다.

나를 낮추면 세상이 높아지고, 상대를 높이면 세상이 평화로워집니다.

모든 갈등은 나를 높이는 데서 비롯되고 모든 고통은 나에 대한 집착으로 오는 것이니, 올 한해는 나를 낮추고 일체를 공경하는 지혜로 살아갑시다.

일찍이 석가모니 부처님도 고집멸도의 성스러운 진리로 법계의 근원을 파악 하셨으니, 그로부터 팔만사천의 법문과 십조구만 오십팔자의 장광설이 베풀어졌습니다.

그러나 일체의 법문과 장광설도 결국은 나 한사람의 마음으로 부터 발현하고 귀착되는 것이니 나를 다스리는 것이 우주 법계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나를 다스리는 것의 최상은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것이니,

상불경 보살의 다함없는 수행이 그 표본이라 하였습니다. 세상에는 아집과 독선 그리고 편견의 파도가 한순간도 그치지 않습니다.

인류를 위협하는 재해와 전쟁의 공포는 물론 장기적인 경제 불황과 국가 민족 간의 갈등이 들끓고 있으니, 어느 땅에 평화의 꽃 한 송이를 피울 수 있겠습니까?

불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여러분, 새해에는 우리 모두 상불경 보살로 살아갑시다.

다툼이 없으면 평화롭고 차별이 없으면 평등합니다. 일체를 공경하는 마음에서 천지의 조화가 드러나고, 상대를 공경하는 마음에서 상생의 복락이 펼쳐집니다.

갑오년 새해를 시작하며, 천지가 원용 하고 일체가 원만하여 정도의 문을 활짝 여는 대지혜가 함께하길 기원 드립니다.



이홍파
관음종 총무원장

갑오년의 해가 저물었습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시끄러웠습니다. 고단한 한 해였습니다.

을미년 양의 해가 떠오릅니다. 새 희망의 태양으로 양이 무리를 지어 살아가듯 우리들도 그런 지혜를 배워야 하겠습니다.

소외된 이웃, 길 잃은 친구, 병든 자들의 고통을 우리와 함께

호흡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가난한 자가 있어 부자가 있습니다.

오늘의 고달픔이 내일의 환희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서 바라보면 배웠을 때 공동체라 합니다.

부처님께서 법화경 방편품을 통하여 우리 삶을 이와 같은 모양,

성질, 주제, 힘, 작용, 원인, 조건, 결과, 보답 하는 것들은 하나의 연기 작용으로 모두 같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내가 손해 보는 마음으로, 함께하고, 배려하면 내가 부자입니다. 그러면 더욱 술술 풀립니다. 연기법에 따라 상생하고 발전 합니다.

謹賀新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원대한 꿈을 갖고
실력을 연마하는
총지인!

나라의 희망이요, 꿈이요, 이상인 청소년을 위한 전통있는 역사의 터전!

총지종 종립 관음학사 동해중학교

교장 탁상달 교감 김재근 외 교직원 일동



법경 정사
(밀교연구소장/법천사 주교)

밀교연재 깨달음의 세계 · 불보살의 도량,
법경정사의 만다라 이야기 (11)

태장계만다라의 중대팔엽원(中臺八葉院) - ‘오불(五佛)과 사보살(四菩薩)’



▲ 태장계만다라의 중대팔엽원(中臺八葉院)

지난호까지 불보살과 여러 존상(尊像)들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번호부터는 태장계와 금강계의 양부만다라와 그곳에 등장하는 여러 존상(尊像)들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태장계만다라는 『대일경』에 설하여진 가르침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대일경』은 전7권으로 39장이나 되는 경전인데 제1장에서는 교리적인 내용이, 제2장부터는 만다라의 건립과 방법을 비롯해서 만다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수법(修法)과 작법(作法)들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대일경』을 근거로 하는 태장계만다라의 이름은 정확하게 말하면, 대비태장생만다라(大悲胎藏生曼荼羅)이다.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커다란 자비심(大悲)의 태(胎)를 품고서[藏] 생장(生長)케 하는 만다라[曼荼羅]’라는 뜻이다. 대일여래에게 완전히 갖추어져 있는 보리심(菩提心)과 대비(大悲), 방편(方便)이라고 하는 부처의 진실한 모습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인데, 마치 어머니가 자궁 속에 아이를 잉태하고 있듯이 보리심과 대비심을 잉태하여 생장시켜 나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쉽게 말하면 중생이 수행을 통하여 부처가 되는 가르침을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태장계만다라는 12개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를 12대원(大院)이라 한다. 원(院)은 담장을 두른 궁실(宮室)을 의미하며, 12개의 담장을 두른 구획(區劃)되어 있으므로 이를 12대원이라 부른다. 12개의 그림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는 수많은 불보살과 여러 존상(尊像)들이 그려져 있다.

12대원 가운데 가장 중심되는 궁실(宮室)이 중대팔엽원(中臺八葉院)이다. 중대(中臺)는 동서남북의 사대(四臺) 가운데 중앙의 자리라는 뜻이다. 이 중대에 바로 비로자나불이 계신다. 그래서 이 비로자나부처님이 계시는 중대팔엽원의 궁실을 『대일경』에서 금강법계궁(金剛法界宮)이라 부른다.

팔엽원(八葉院)은 여덟 개의 연꽃잎으로 이루어진 궁실(院)이다. 그 여덟 개의 연꽃잎은 중앙의 비로자나불을 감싸고 있는데, 네 분의 부처님과 네 분의 보살을 나타낸다. 이를 사불(四佛), 사보살(四菩薩)이라 한다. 사불(四佛)은 중앙의 비로자나불을 감싸고 네

분의 부처님이요, 사보살(四菩薩)은 네 분의 부처님을 협시하고 있는 보살들이다. 이와 같이 중앙의 비로자나부처님과 이를 위시한 사불(四佛)과 사보살(四菩薩)이 있는 궁실이 바로 중대팔엽원이다. 아홉 분의 불보살이 계시는 곳으로 태장계만다라에서 가장 중심되고 핵심되는 곳이다. 『대일경』의 교리와 제불보살(諸佛菩薩)의 공능(功能)이 농축되어 있다.

여덟 개로 펼쳐진 연꽃잎의 모양이 인도에서는 심장(心臟)에 비유된다. 그 심장은 또한 깨달음 그 자체를 나타낸다. 연꽃의 색깔은 『대일경』에서 묘백연(妙白蓮)이라 하여 흰색으로 표현되는데 이는 중생의 청정심(淸淨心)을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 그림에서는 심장을 본 떠서 적색으로 표현되어 있다. 연잎 중앙에는 대일여래 비로자나부처님, 동쪽에는 보당여래(寶幢如來), 남쪽에 개부화왕여래(開敷華王如來), 서쪽에는 무량수여래(無量壽如來), 북쪽에 천고뇌음여래(天鼓雷音如來)의 사불(四佛)이 있고, 동남쪽에 보현보살(普賢菩薩), 남서쪽에 문수보살(文殊菩薩), 서북쪽에 관자재보살

(觀自在菩薩), 북동쪽에 미륵보살(彌勒菩薩)의 사보살(四菩薩)이 그려져 있다.

이들 아홉 분의 불보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연재했던 ‘불보살 이야기’에서 충분히 설명하였으므로 여기서는 간략하게 설명하기로 한다.

사불과 사보살의 관계는 비로자나부처님의 지혜를 완성해나가기 위한 정(正)과 부(副)의 조력자로서 수행의 단계를 나타낸다. 즉 보현보살은 보당여래의 밑에서 깨달음에 대한 자각(自覺)과 그것을 추구하는 행위를 나타내고, 문수보살은 개부화왕여래의 밑에서 수행하며 지혜를 증득하라는 것을 나타낸다. 관자재보살은 무량수여래의 밑에서 깨달음을 얻어 이상境地(理想境地)에 이르러는 것을 나타내며 미륵보살은 천고뇌음여래의 밑에서 이상경지를 얻어 사람들에게 구제의 손길을 뻗치고자 하는 것을 나타낸다.

다시 말해서 대일여래의 지혜가 보당여래, 개부화왕여래, 무량수여래, 천고뇌음여래의 공능과 사보살의 보조역할과 작용으로써 완성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수행과정과 단계를 나타내면, 발심(發心)과 수행(修行), 보리(菩提)의 증득, 열반(涅槃), 방편(方便)으로 표현된다.

연꽃잎 사이에 있는 금강저(金剛杵)는 지혜의 갖가지 작용을 표현한 것이며, 중대팔엽원의 네 귀퉁이에 놓여 있는 네 개의 병(瓶)은 대일여래의 사덕(四德)을 나타낸 것이다. 즉 보리심(菩提心), 자비심(慈悲心), 뛰어난 견해(勝解), 방편(方便)을 나타낸다. 중대팔엽원의 주위에는 선(線)이 그려져 있는데, 이는 오색계도(五色界道)라고 불리며, 안쪽에서 바깥쪽을 향하여 백(白), 황(黃), 적(赤), 청(靑), 흑(黑)이 순서대로 채색되어 있다. 이것은 대일여래의 덕(德)이 사방으로 전개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중앙의 대일여래는 지혜가 널리 비추어짐을 나타낸다. 그래서 밀교에서는 변조금강(遍照金剛)이라 부른다. 존상(尊像)은 황금색으로 오불(五佛)의 관(冠)을 쓰고 비단으로 된 가사를 입고 연화좌에 앉아 있다. 손모양은 법계정인(法界定印)이다.

동방의 보당여래는 대일여래의 보리심을 전개시키는 역할을 한다. 백황색을 하고 오른손은 여원인(與願印)을 취하고 왼손은 가사의 한쪽 끝을 잡은 채로 왼쪽 가슴 앞에 놓은 모습이다.

남방의 개부화왕여래는 대일여래의 보리심을 성장발육시켜 활짝 피게 하는 역할을 한다. 꽃이 활짝 피어 있다는 뜻이 개부화(開敷華)이다. 존상(尊像)은 황색이며 왼손은 가사의 한쪽 끝을 잡고 배꼽 앞에 놓고, 오른 손은 시무외인(施無畏印)을 하고 가슴 앞에 놓은 모습으로 보련화(寶蓮華)에 앉아 있다.

서방의 무량수여래는 보리심을 증득하여 중생들에게 나누어 주고자 하는 역할을 한다. 즉 모든 사람들의 고뇌를 끊어 소원하는 바를 이루어지도록 한다. 존상(尊像)은 백적색(白赤色)이며 아미타정인(阿彌陀定印)을 하고 있다. 엷은 가사를 입고 연화(蓮華)에 앉아 있다.

북방의 천고뇌음여래는 대일여래의 보리심을 얻어 일체의 번뇌를 끊고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러 일체중생을 제도하는 역할을 한다. 존상(尊像)은 황금색이며 왼손은 금강권(金剛拳)을 하여 배꼽 앞에 놓고 오른손은 촉지인(觸地印)을 하고 있다. 이 사불(四佛)을 호위하고 협시로 그려져

있는 보살이 사보살인데, 보현보살은 동방의 보당여래와 남방의 개부화왕여래 사이에 있다. 보리심의 덕이 전개되는 것을 나타낸다. 존상(尊像)은 백색으로 머리에는 오불(五佛)이 새겨진 관(冠)을 쓰고, 왼손에 연화를 쥐고 있고 그 연화 위에 검(劍)이 놓여 있다. 오른 손은 삼업묘선인(三業妙善印)을 맺고 있다. 신구의 삼업으로 짓는 열 가지 선업도(善業道)의 덕이 널리 중생들에게 퍼지는 것을 상징한다.

문수보살은 남방의 개부화왕여래와 서방의 무량수여래 사이에 있는 보살이다. 묘길상(妙吉祥)의 뜻을 지니고 있으며, 커다란 지혜로써 보리심을 청정하게 하고 반야의 검(劍)으로 번뇌를 잘라 없앤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 존상(尊像)은 황색으로 왼손에 연화를 들고 그 위에 오고금강저(五鉤金剛杵)가 놓여져 있다. 오른손은 경전을 쥐고 있는 모습이다.

관자재보살은 서방의 무량수여래와 북방의 천고뇌음여래 사이에 있으며, 무애자재하게 일체를 관찰하고 중생들의 고뇌를 자재하게 꿰뚫어 보고 구제하는 역할을 한다. 존상(尊像)은 백색이며 왼손은 시무외인(施無畏印)을 하고 왼쪽 가슴 앞에 놓고 오른손은 연화를 들어 오른쪽 가슴 앞에 놓은 모습이다. 머리에 아미타불이 새겨진 보관(寶冠)을 쓰고 있다.

미륵보살은 북방의 천고뇌음여래와 동방의 보당여래 사이에 있으며 흔히 자씨보살이라 불려지는 보살이다. 장래에 성불할 것을 수기받은 보살로서 당래불(當來佛), 미래불(未來佛)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현재는 도솔천에 머물며 선정에 들어 있다. 존상(尊像)은 백색으로 머리에는 보탑(寶塔)이 새겨진 보관(寶冠)을 쓰고 있고 왼손은 시무외인을 하고 오른손은 병을 올린 연화를 들고 있다.

이와 같이 대일여래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사불(四佛)과 사보살(四菩薩)이 계시는데, 무명중생을 지혜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로 인도하고 있는 것이 중대팔엽원의 불보살들이다. 이를 관(觀)함으로써 나 자신이 지혜의 세계에 들고 일체번뇌와 고통을 멀하게 된다. 새해에는 중대팔엽원을 놓고서 염송해볼 만하다.

〈다음호에서 변지원(遍知院)과 불보살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

謹賀新年
총기 44년 · 불기 2559년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서초구립
포레스타 7단지 어린이집



서울시 서초구 청계산로 11길 7-12 708동 1층 / ☎ 070-7204-2030

謹賀新年
총기 44년 · 불기 2559년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바라밀 공부방
청소년들의 활기찬 심터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동 8-8 ☎ (051)552-0705

“대불련발전기금 모금에 진력하기로” 대불련총동문회 송년의 밤 개최



전국 총동문들이 참가하는 송년법회가 12월 25일 오후 5시 서울 공군회관(대방역 부근)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300여명이 참석한 이날 송년법회에서 백효흠 회장은 인사를 통해 "올해는 333운동을 전개하겠다"며 "3천명 동문이 참석하고, 300여개 대학에 대불련 함성이

울려 퍼지고, 대불련과 총동문회 사단법인 3개단체가 삼위일체돼 서로 발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불련 윤미숙 최현정 김유진 권기철 김수용 권기형 이준형 이채은 제현욱 학생에게 일반장학금을, 인하대 송실대 대경지부 카톨릭대등 4개 대학에

단체장학금, 이승호군 강다연양에게 시공장학금을 수여했다.

송년회는 총동문회 2014년을 돌아보는 영상을 상영한 뒤 윤제철 전 회장의 사남송이 있었다.

또 대불련발전위원회(위원장 최승태)는 대불련 살리기 호소문 영상을 발표했다. 백효흠 회장은 모언문을 발표하며 기금조성의 의의를 설명했다.

2부에서 진모영 감독은 '남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영화를 10분 방영하고 감독 인사했다.

3부에서는 동문장기자랑과 김양희 동문의 가곡, 가릉빈가국악단 연주, 행운권 추첨, 환송인사, 주인공을 맞춰라등의 이벤트가 열렸다.

대불련총동문회는 전 참가자들이 동근원을 만든뒤 손을 잡고 대불련가를 회향곡으로 합창했다.

“도림당 법전 대종사 각령이시여! 큰 빛으로 다시 오소서!”

도림 법전 대종사 영결 및 다비식봉행, 12월 27일 오전 11시 해인사



▲ 조계종 전 종정 법전 대종사 영결법회

“시화대중아,
금일 도림법전 대종사의 열반노도가 어디에 있음인고?
복숭아꽃 붉고, 배꽃 희고, 장미꽃 자줏빛인 것을 동쪽
집사람들에게 물어도 다 알지 못함이로다.”

가야산 해인사에서는 12월 27일 오전 11시 도림 법전 대종사 영결식이 해인사 구광루에서 열렸고 다비식은 영결식 후 다비장 연화대에서 봉행됐다.

명중, 개식, 삼귀의례, 영결법요에 이어 전 종회의장 향적스님은 행장소개에서 “1967년 해인총림이 설치되면서 해인사와 인연을 맺고 가람수호와 총림대중의 화합을 통해 수행가풍 진작에 진력하셨다.”며 “2003년 〈백전간두에서 한걸음 더〉라는 법문집을 통해 간화선을 두루 선양하셨고, 2009년 자서전 〈누구없는가〉를 저술하여 스님의 진솔한 삶과 수행 흔적을 세인들에게 보여주셨다.”고 말했다.

영결사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도림당 법전대종사님! ‘산을 만나면 길을 닦고, 다리를 만나면 물을 건너라’고 하셨던 스님의 법음이, 오늘도 내일도 물소리 세소리로 생생하니 대중들은 슬픈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라고 애도했다.

이어, 자승스님은 “대종사님! 이제 후학은 평생을 강조하신 가르침을 받들어 새로운 절구통 수좌들이 줄을 이어 나오기를 서원하고 있습니다.”라며 “그것이 스님의 가르침을 받드는 길이며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스님께서 일생을 타셨던 뗏목 위에서 사공에게 길을 물으며 정진을 쉬지 않겠습니다.”라고 다짐했다.

법어에서 조계종 종정 진제스님은 “대종사께서는 일생일로의 삶이셨으니, 때문에 없는 동진으로 출가하고 일찍이 성철노사를 친견하여 결사에 임한 뒤로는 일생토록 좌복을 여의지 않으신 눈푸른 남자의 본분표상이셨다.”라며 찬했다.

내 몸은 본래 없는 것이요 마음 또한 머무는 곳 없나니
재를 만들어 사방에 뿌리고 시주의 땅을 범하지 말라

추모사에서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밀운스님은 “고려의 선종을 드높인 백운경한 선사님의 임종게이다. 청빈수행과 원융화합의 종풍이 흐트러진 공업을 감당해야 하는 우리 사부대중이 마음깊이 되새겨 보아야 할 선지식의 가르침이다”며 “법전 대종사께서 시작하신 최상승의 두타행과 덕화는 동서고금의 시공을 초월해 불타의 혜명을 더욱 밝게 비추는 등불이 될 것이다.”고 추모했다.

영결식에 이어 해인사 구광루에서 다비장이 치러질 연화대로 향하는 법전 대종사의 장례행렬은 사부대중 스님들, 전국 선원수좌회 스님들 및 영결식을 찾은 신도들로 끝없이 이어졌다. 다비장이 치러질 연화대에 도착한 법전대종사의 법구는 “스님, 불 들어갑니다. 어서 나오십시오요”라는 외침과 함께 착화한 불길은 순식간에 타들어 갔다. 의도적인 건 아니었지만 절묘하게 동그런 원을 이룬 연화대 주위의 스님들과 신도들은 눈가에 눈물을 머금고 마지막 스님 가시는 길을 위해 ‘석가모니불’을 염송했다.

“영화감독의 첫단추는 대불련 입회가 확실” 진모영 '남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영화감독 감사인사



▲ 진모영 감독

"한국독립영화사상 신기록을 세우고 있지만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부딪치며 개봉시 대불련 동문들께서 불을 밝혀주셨습니다."

전남대 불교학생회 출신으로 94년 대불련 광주지부장을 역임한 진모영 감독은 영화 '남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가 전체 박스오피스 1위에 등극하며 올해 최고의 흥행을 거두는 쾌거가 이뤄지고 있는 것과 관련 이같이 밝혔다.

“제가 영화감독이 된 첫단추는 불교

학생회 입회가 확실하다”며 “앞으로도 항상 같이 하는 감독이 되겠다”고 밝혔다.

진모영 감독은 개봉초기부터 대불련 밴드에 글을 올렸고, 전국 15만 회원들은 전국각지에서 영화보기 캠페인을 벌였다. 대불련총동문회는 동문들이 진감독 영화를 보고 스마트폰으로 인증시 송년모임 무료입장권을 주는 이벤트도 실시했다.

영화는 초기 개봉관이 줄어들며 고사위기에까지 갔지만 관객들의 입소문으로 현재 다시 상영관이 늘고, 상영 15일 만에 결국 흥행에 성공했다.

진모영 감독은 12월 25일 대불련 총동문회 송년회에 참석해 영화를 10분 방영하고 감독 인사를 했다. 진감독의 부인도 대불련출신이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남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는 12월 26일 관객 300만명을 기록, 개봉 15일 만에 40만 관객 돌파라는 신기록을 달성하고, 독립영화사상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했다.

인터스텔라등 블록버스터 외화들의 공세 속에서 당당히 전체 박스오피스 1위 자리를 7주 만에 탈환한 한국 영화 ‘남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는 박스오피스 1위뿐만



아니라, 예매율과 관객 평점까지 1위를 차지, 모든 차트를 휩쓸며 ‘남아 신드롬’ 열기를 이어가고 있다.

흥행 신드롬이 되어가고 있는 ‘남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는 76번째 연인으로 살아가는 89세 소녀감성 강계열 할머니, 98세 로맨티스트 조병만 할아버지의 삶을 얘기한다.

박태동 불자 <끝없는 호기심과 도전>퍼내



▲ 박태동 불자

미지의 세계를 동경하는 것은 인간의 권리다. 그러나 모든 인간이 그 세계를 향해 달려가지 못한다. 거개의 사람들은 호기심은 있으나 행동을 옮기지 못한다. 그리고 스스로 이런 저런 핑계를 댈다.

그런데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을 억누르지 못하고, 끊임없이 세계로

뛰어나가는 사람이 있다. 공무원 생활을 하다 퇴직하고, 한 로펌에 근무하면서 틈틈이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무하다 부이사관을 끝으로 퇴직한 후 케이씨엘 법률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박태동 고문이다.

그는 올해 회갑을 맞이한 시니어다. 그러나 언제나 에너지가 넘치는 젊은 시니어다. 생각이 젊어서 몸이 젊은 것인지 몸이 젊어서 생각이 젊은 것인지 모르겠다. 그는 언제나 생각이 젊고 몸도 젊다.

그는 공무원생활을 할 때도 틈틈이 전국의 수많은 산과 들을 휘돌아다녔다. 구름처럼 바람처럼 여행을 다닌던 그는 50대 중반에 산악회 동료들과 백두대간을 중주했다. 그리고 발걸음을 세계로 옮겨갔다.

<끝없는 호기심과 도전>은 싱가포르, 발리, 라오스 등 동남아시아부터 네팔, 차마고도, 티베트, 몽골 등 히말라야와 내륙 고원지대를 다녀온 이야기, 그리고 스페인, 포르투갈, 북유럽,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 터키 등 유럽과 유라시아를 다녀온 이야기들을 여행기로 꾸민 책이다.

작가는 여행을 다니기 전에 벌써 여러 가지 책을 읽고, 인터넷 자료를 검색해서 현지 가이드에 버금가는 지식을 머리에 담고 여행을 떠났다. 작가는 불교와 유교, 기독교와 티베트의 라마교까지 다양한 종교 유적과 사원들을 데하는 시선이 다른 여행자들과 다르다.

모두 17개 나라를 다녀온 이야기가 마치 곁에서 듣는 것처럼 생생하게 전해진다.

정가 : 18,000원/전화 : 031-932-7743

謹賀新年

총기 44년 · 불기 2559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전화사

주 교 : 정사 법 상
전수 정 원

☎ 054-761-2466

개천사

주 교 : 정사 우 인
전수 보 명 심

☎ 053-425-7910

국광사

주 교 : 전수 해 안 정

☎ 054-772-8776

단음사

주 교 : 정사 도 우
전수 지 현

☎ 054-333-0526

선립사

기로스승 : 보 원
심 지 장

☎ 054-261-0310

수계사

기로스승 : 안 주 화

☎ 054-745-5207

수인사

주 교 : 정사 안 성
전수 유 가 해

☎ 054-247-7613

승천사

기로스승 : 원 봉
지 선 행

☎ 054-746-7434

제석사

주 교 : 전수 행 원 심

☎ 053-743-9812

함께하는 나눔
실천하는 수행



대구 · 경북 교구 일동

유물로 보는 비로자나불



▲ 제1021호 산청 석남암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

예로 조각사 편년 및 사상사 연구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보물 제1021호 산청 석남암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
(山淸 石南巖寺址 石造毘盧遮那佛坐像)

소재지 : 경남 산청군 삼장면 대내원로 256, 내원사 (대포리)
시 대 : 통일신라

지리산 중턱에 있던 석남암사지에 있다가 현재 내원사로 옮겨 놓은 돌로 만든 비로자나불상이다.

비바람에 의한 마멸 때문에 세부표현은 명확하지 않지만 당당하고 세련된 모습이다. 머리 위에 있는 상투 모양의 머리(육계)는 높고 큼직한 편이나 약간 파손되었으며, 둥근 얼굴은 부피감이 풍부하여 8세기 불상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상체는 건장한 모습으로 자연스러운 가슴, 허리의 굴곡, 어깨나 팔의 부피감 등에서 사실미를 잘 표현하고 있다. 전신을 감싸고 있는 옷은 얇아서 신체의 굴곡을 잘 드러내고 있으며, 옷주름 역시 촘촘하고 부드럽게 표현하여 8세기 불상의 옷주름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손모양은 왼손 검지를 오른손으로 감싸 쥐고 있는 모습으로 이 불상이 비로자나불임을 알려주고 있다.

불상이 앉아있는 대좌(臺座)는 상대·중대·하대로 이루어졌는데, 8각의 하대에는 아래를 향한 연꽃무늬를 새겼다. 중대는 8각의 각 모서리마다 기둥을 새겼으며, 상대에는 2겹의 연꽃무늬를 새겼다. 부처의 몸에서 나오는 빛을 형상화한 광배(光背)에는 연꽃무늬와 불꽃무늬가 새겨져 있는데, 위에서 오른쪽으로 비스듬히 하단까지 걸쳐 약 3분의 1 정도가 없어져 버렸다.

대좌 중앙의 구멍에 있었던 사리호(舍利壺) 표면에 기록된 글에는 신라 해공왕 2년(766)에 비로자나불상을 조성하여 석남암사에 모신다는 내용이 있다. 이 불상은 비로자나불상의 가장 빠른 조성

자료제공=문화재청



내용참조 : "불교총전 인과응보편 231p



관세음보살 42수(手) 진언

8. 일정마니수(日精摩尼手) 진언



옴 도비가야 도비바라 바리니 사바하
만약 눈이 어두워 밝게 보지 못하면
이 진언을 외우라

謹賀新年

충기 44년 · 불기 2559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만보사

주 교 : 정사 승원
전수 묘원화

☎ 042-255-7919

백월사

주 교 : 전수 환수원

☎ 042-527-5470

법황사

주 교 : 정사 도현
전수 자인행

☎ 062-676-0744

혜정사

주 교 : 전수 진일심

☎ 043-256-3813

흥국사

주 교 : 정사 지정

☎ 063-224-4358

중원사

주 교 : 전수 정정심

☎ 043-833-0399



충청 · 전라 교구 일동

제22회 불교언론문화상대상

KBS부산, 부처님오신날기획

“항일결사, 선불교를 지켜라”



제 22 회 불 교 언 론 문 화 상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2층
시상식이 12월 3일(수) 오후 3시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봉행되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보리(이사장 조채희)가 주관하는 제22회 불교언론문화상 영예의 대상에는 KBS부산총국이 출품한 “항일결사, 선불교를 지켜라”가 수상했다.

‘불교언론문화상’은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언론을 통해 건강한 사회발전을 위해 기여한 TV, 라디오, 신문, 뉴미디어 등 기타 분야에서 뛰어난 불교관련 작품을 선정하고 아울러 언론계에 남다른 공로로 올바른 언론문화 창달에 크게 이바지하신 불자와 작품을 선정하여 불교언론인상과 특별상을 시상했다.

불교언론문화상은 한해 동안 (2013년도 10월 1일부터 2014년도 9월 30일까지) 발표·방영된 작품을

대상으로 하며, 올해는 총 40작품이 접수되어 예심을 거쳐 본심에는 총 27작품이 본심에 올랐습니다.

불교언론인상과 특별상은 불교언론문화상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하며 헤일스님(운영위원장/총무원 문화부장), 일감스님(총무원 기획실장), 송묵스님(총무원 포교부장), 대오스님(중앙종회 사회분과위원장), 조채희(사단법인 보리 이사장), 김성부(안국선원 흥법운영팀 부회장), 박준영(전 국악FM방송 사장), 성태용(건국대 철학과 교수), 김무곤(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장), 이동식(영화진흥위원회 감사), 박종권(전 KBS방송심의위원) 위원들이 참여하였다.

오피니언 칼럼

을미년 새해 불교계에 바란다.

올해도 어김없이 동해의 해는 찬란하게 떠올랐다. 한번 간 시간은 다시 오지 않고, 그 업장과 인연으로 이어지는 시간들이 다가온다.

지난 한해는 전 국민이 큰 슬픔에 빠진 사건 사고들이 이어졌다. 물론 불교계에서도 많은 사건들이 일어난 한 해이다. 그럴 때마다 여러 가지 처방을 내놓고는 어느 순간 세인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졌다.

올 해는 12간지 중 양(羊)의 해이다. 양은 그 성격이 온순하여 서로 무리를 지어 사는 동물이다. 서양에서는 제물의 상징이지만 동양에서는 평온의 상징이다.

불교계 언론에서 일하는 입장에서 올 한 해 만큼은 양들처럼 무리 지어 평화로이 사는 모습을 불교계에서 봤으면 하는 바람이다. 평온한 가운데 대중을 이루고 수행정진으로 성불을 앞당기는 모습을 기원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부대중은 먼저 부처님의 계율을 철저히 지키고,

서로를 보듬어 안으며, 외도의 거센 파도를 이겨나가기를 바란다. 물론 그 무리의 우두머리로 대중들을 이끌어 나가는 것은 승가의 몫이다.

올 한해는 아무 뉴스가 없었으면 좋겠다. 불교계가 조용히 수행하는 사부대중의 수행열기로 채워지기를 부처님 전 고투 삼배 기원한다.



우리불교신문 편집국장 김원주

작은 티베트, 라다크 여행기

<라다크에서 찾은 부처>

불교서적 에세이

인도 스리나가르에서 라다크의 주도인 레를 오가는 버스를 타본 사람들은 대부분 그 강렬했던 추억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높은 고개 길은 머리가 깨질 것 같은 두통을 몰고 오지만, 또 3천 피트 낭떠러지를 위를 달리는 버스는 죽음의 문턱을 오르내리게 하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너무나 아름답고 신비해서 이 세상의 그것이 아닌 것 같은 강렬한 느낌을 준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상그릴라’라고 불릴 만큼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라다크는 히말라야 산맥이라는 지형조건 때문에 오랫동안 외부와 차단된 채 그들만의 문화를 지키며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다크인들은 물질주의에

덜 세뇌되었고,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라다크가 매력적인 것은, 라다크는 티베트 불교전통이 잘 유지돼온 곳이기 때문입니다. 존경받는 립포체를 중심으로 해서 승가학교에서는 어린 승려들이 훌륭한 불교교육을 받고 있으며, 또 대부분의 라다크 사람들은 윤회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고, 그 믿음으로써 척박한 환경을 극복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이 고장 사람들 대부분은 단순하고 감상을 배제한 채 살아가고 있고, 욕심도 별로 없고, 별다른 자존심이나, 허영심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지. 여기 사람들은 노인과 어린이들에게, 또 서로서로에

대해 관대하오. 이들이 승려들에게서 무엇을 배우는지 아시오? 모든 생명체는 전생애 자신들의 어머니였으므로 그것을 어머니처럼 존경해야 한다고 배워요. 나는 이곳에서 잔인한 행동을 거의 본 적이 없소. 딱 한번 어떤 어린애가 개를 괴롭히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그게 3년 동안 본 것의 전부요. (33p)

라다크는 헬레나 노르베르 호지의 <오래된 침묵>을 통해 세상에 알려진 후 많은 사람들에게 신비와 호기심의 땅으로 인식됐습니다. 여행가들에게는 꼭 한 번쯤 가야할 곳으로 여겨지는 곳인데, 이 책 <라다크에서 찾은 부처>를 저술한 앤드류 하비 또한 다른 대부분의 여행가들처럼 물질적이고 경쟁적인 현대문명에 지친

사람이었고, 자신의 지친 영혼을 치유할 곳을 찾다가 라다크에 오게 된 경우입니다.

앤드류는 라다크의 아름다운 풍광과 문화에 매료됐고, 이어 라다크의 티베트 불교를 만나게 되고, 최고 스승인 립포체를 통해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찾게 됐습니다. 그 과정을 매우 상세하면서도 감성적인 필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헬레나 호지의 <오래된 미래>와 함께 라다크에 관해서 꼭 읽어야 할 명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저자는 라다크 불교의 최고 스승인 립포체를 만나 옥스퍼드대 교수라는 사회적 명예를 포기하고 티베트 불교의 승려가 됐는데, 라다크 불교의 스승인 립포체에 대한 감동과 존경을 표현한

부분은 인상적이었습니다.

립포체가 나를 만나겠다고 말했지만, 형편상 그는 여러 날 동안 나를 만날 수 없었다. 그렇지만 나는 모든 것 속에서 그를 느꼈다. 승원의 그림 하나 하나, 돌 하나, 새 한 마리 한 마리가 기쁨의 원천과 중심은 그에게 있었다. 그가 머물고 있는 건물 지붕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자니, 라다크의 긴 골짜기가 어떤 날씨에도 항상 열려있는 그의 따뜻한 양 손 중의 하나로, 산들은 그의 팔로 보였다. 나는 그의 힘이 모든 것을 관통해 빛나는 것을 보았다. (366p)

저자야말로 여행을 통해서 삶을 바꾼 경우에 해당됩니다. 여행은 영혼의 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큼니다. 자신을 이루는



에고를 해체하고 새로운 것을 끌어올 수 있는 기회가 여행인데, 여행을 통해 형성된 새로운 자아는 기존의 자아보다 훨씬 자유롭고 행복하고, 또한 활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것이고요.

앤드류 하비/여시아문/1만2천원
김은주(자유기고가)

謹賀新年

총기 44년 · 불기 2559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울경인교구

지 회 장 : 김 은 숙
부 회 장 : 박 정 회
 손 경 옥
총 무 : 이 인 성
 홍 순 화
재 무 : 양 재 범
감 사 : 신 일 생
 이 연 수

부산경남교구

지 회 장 : 신 인 록
총 무 : 정 남 선

대구경북교구

지 회 장 : 한 영 란
총 무 : 임 연 옥

충청전라교구

지 회 장 : 민 순 분
총 무 : 이 민 자

각 사원
신정회 회장과
임원 일동



불교총지중 신정회 일동

불교총지중 본산 '총지사' 서원당

불교의 생활화·생활의 불교화를
실천하는 불교총지중.
진언밀교 총지도량에서
즉신성불의 대도를 이루시길 서원합니다.



불교총지중

다가오는 총기 44년 새로운 모습으로
교도님들과 전국의 불자들에게 다가갑니다.

원정대성사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정통밀교의 흥포를 위해 힘없이 달려왔습니다.

지난 한 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교도님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하시기를 서원합니다.

총기 44년 새해불공

총기 44년 1월 5일 ~ 11일

장소 : 전국 서원당



불교총지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우) 135-928

Tel: 02,552,1080~3

Fax: 02,552,1082